

제2회 전라남도 수산업 경영인대회



- 제2회 전라남도 수산업 경영인대회 -

제3회 전라남도 수산업경영인대회가 8월 29일부터 30일 까지 양일간에 걸쳐 청정해역인 완도군 농어민문화체육 센터에서 치러졌다.

전라남도연합회가 주최하고 완도군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박준영 도지사, 이영호 국회의원, 조학행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 김종식 완도군수 등 관계기관 내외빈과 수산업경영인등 6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30일 본행사 축사에서 전국 제일의 수산세력을 가지고 있는 전남의 여건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해양생물 산업 개척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해양수산발전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한수연 중앙회에서는 이상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도연합회 회장단이 참석하여 대회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이상만 회장은 격려사에서 적조피해와 한미FTA협상 등 어려운 난관에 있는 수산업의 중흥을 위하여 회원들의 힘을 모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29일 전야제에서는 송대관 등 유명가수 초청 공연을 시작으로 성공사례발표와 수산정책설명회가 있었으며 30일 본 행사에서는 수산자원보호에 따른 결의문 채택과 경영인에 대한 표창과 공로패 수여가 있었다.

수산업경영인 및 어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상만)는 국제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기술능력 배양하기 위하여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수산업경영인 및 어촌지도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대만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대만 해외연수에서는 우리나라와 어업여건이 비슷하고 경쟁·보완관계에 있어 다양한 정보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대만의 새우·뱀장어·전복양식장, 수산물 시장, 어업시험소, 어촌관광사업 등을 체험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와 견문을 넓혀 전문어업경영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